

모기 계절이 본격적으로 찾아왔다. 캠핑 다녀온 아이는 물론이고 청와대 앞에서 열흘 이상 단식수행하는 내원사 지울스님의 양팔에도 모기 흔적이 역력하다.

지울스님은 천성산의 생명가치를 옹호한다. 보존대상인 무제치늪을 비롯하여 무려 십수 개의 고원습지를 품고 있는 천혜의 천성산에 터널을 내면 이미 절멸 위기에 몰린 꼬리치레도롱뇽은 물론 수많은 동식물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다. 살려 달라는 동식물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스님은 38일과 45일에 이르는 단식을 곁행했고 또 38일 동안 삼천배를 수행했으며 꼬리치레도롱뇽 원고로 대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무생물인 기업도 고소 고발이 가능한 마당이다. 기업의 권리를 사람이 대리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미성년자는 물론 나무도 풀도 동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세계의 추세가 그렇다. 그런데 꼬리치레도롱뇽은 얼마 전 패소했다.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시대착오적 해석으로 법원 문턱에서 거부당했다. 꼬리치레도롱뇽은 즉각 항소, 고등법원에서 현재 심의중인데 터널공사는 오늘도 계속된다. 공사현장의 중장비를 몸으로 막던 지울스님은 청와대 앞에 가부좌를 틀었다. 제시된 다양한 대안에도 터널을 고집하는 정부와 임기 초기의 철회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대통령에게 목숨 내건 단식수행을 천명하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보시하는 지울스님의 양팔은 장마철 모기에 게 뜻밖의 횡재다. 모기약도 뿌리지 않았으니 모기들은 더욱 신난

글 | 박병상



‘황금암’ 과 맞바꾼 인류의 미래

다. 그런데 요즘 모기들은 웬만한 살충제에 끄떡도 않는다. 내성이 강화된 것이다. 내성 강화는 모기뿐이 아니다. 4세대 항생제마저 비웃는 ‘슈퍼세균’은 종류와 수를 거듭 갱신한다. 백신개발 속도를 비웃는 독감을 비롯하여 수많은 바이러스는 사람에 의해 교란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에 광우병이 없다고? 쇠고기 판매에 운명을 거는 축산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을 그렇게 현혹한다. 잠복기가 십 년이 넘는 광우병은 미국도 예외가 아닌데, 미국산 쇠고기는 물론 생우까지 수입하는 현실을 왜 무시하는가. 영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4살배기 딸과 텔레비전 앞에서 햄버거를 맛있게 먹은 영국의 농업장관은 다행히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을 믿은 수많은 영국인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았고, 수십만 마리의 소를 즉각 소각해야 했다. 광우병 파동이 일자 청와대에서 불고기 파티를 연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소를 밀집사육하면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반추위를 가진 초식동물에게 부순 곡물과 죽은 소를 가공해 만든 육골사료를 섞어주면, 축산업자는 돈을 더 벌지만 소는 미친다. 사람은 소를 잡아먹는다.

광우병 걸리지 않는 소를 유전자조작과 복제기술로 개발한다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오만한 과학기술이 장담한 대로 성공했다 치자. 그런 소는 유전적 다양성이 현저히 작아 밀집축산 이외의 방법으로 질병관리가 불가능하다. 과밀축산을 위협하는 질병은 많다. 구제역은 걸보기 멸절된 소와 돼지와 양을 대량 도태시켰고 조류독감은 닭과 오리들을 때로 죽게 했다.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질병 발생지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생매장했다.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기술은 장기이식용 미니돼지를 무균실에서 사육하겠다고 버른다. 유전자조작으로 거부반응을 없애 안전하리라 기대하지만 선구적인 연구들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진화과정을 통해 돼지 유전자 내에 삽입된 내인성바이러스가 환자를 먼저 감염시키고 환경으로 빠져나올 경우 에이즈 이상으로 위험하게 창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유전자에 존재하는 내인성바이러스들은 무균실로 차단할 수 없다. 내인성바이러스는 다른 중에 옮겨갈 때 치명적으로 돌변할 경우가 많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의 질병은 대개 환경오염이 원인인데, 무균돼지가 희망일까.

사람의 유방암을 갖고 태어나는 질병모델 생쥐의 마리당 판매가격은 500만 원 정도다. ‘황금암을 낳는 생쥐’다. 이스라엘 과학자가 개발한 털 없는 닭은 자본의 이익에 충성한다. 맥도널드와 같이 닭을 대량 취급하는 다국적 식품회사의 털 뽑는 공정을 없앤다. 딸기 유전자를 젓소에 잘 집어넣으면 목장에서 딸기우유를 받을지 모르지만 우유를 먹은 사람은 어떨까. 체초제저항성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십자 잡초까지 체초제에 끄떡없게 되는 사례는 어떤 음울한 내일을 우리에게 안내할까.

이웃을 설득해 무농약 복숭아를 출하하려던 귀농부부는 하늘이 노래졌다. 멧돼지가 내려와 무농약 복숭아만 파먹은 것이다. 미안해하는 부부에게 다가온 이웃은 “괜찮아유, 멧돼지도 안 먹는 복숭아 심는 걸 후회해야지유” 했다. 그해 귀농부부의 소비자들은 복숭아 잼으로 흔쾌해야 했다. ‘동물의 역습’ 이 아니다. 그 멧돼지를 닮할 수 없다. 멧돼지의 터전에 과수원을 낸 우리가 미안해해야 한다. 충을 쏘지 않아도 까치가 먹골배를 파먹지 않는다고 한 농부는 귀뜸한다. 제초제와 살충제를 뿌리지 않으면 맛난 벌레가 많은 까담에 그물망으로 과수원을 감싸지 않아도 덜 익어 붉은 배는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경험담이다.

동물원에 사로잡힌 야생동물은 초점을 잃고 질병과 비만에 시달린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놀이터와 잔디밭에 그대로 두면 엉뚱한 사람들이 개회충에 감염된다. 경기나 나빠지자 사철탕 집에 애완견 팔아먹는 상훈은, 키우던 붉은거기북을 호수공원에 내버리는 인심과 맥을 같이하고, 떠도는 고양이에게 장난감 충을 난사하는 아이들은 문방구 앞 햄스터 뽑기에 여념이 없다. 동물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세태는 노력보았다는 이유로 낯선 이웃에게 갈과 주먹을 휘두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부른다. 필연적 부메랑이다.

광우병, 돼지의 내인성바이러스, 저항력 커진 모기만이 부메랑의 전부가 아니다. 지하집모기를 발생시킨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개발이라는 부메랑을 연실 던지고 있다. 산간계곡에 몸을 숨기던 꼬리치레도롱뇽을 거의 박멸한 사람들은 산모기의 출현에 항공방제를 요구하는데, 괜찮을까. 개구리와 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이다. 산후조리원 밖에는 애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이웃과 생태계의 따스함을 잃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을까.

청와대 앞의 지울스님은 꼬리치레도롱뇽의 터전을 지키려 단식농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의 내일을 위해 목숨을 내건 수행에 나선 것이다. **▶**



◀ 마크 롤렌즈의 《동물의 역습》(달팽이). 인간중심주의의 해체와 동물권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을 쓴 박병상은 인하대 생물학과 및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과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으며 성공회대와 인하대 등에서 강의 중이다. 지은 책으로 《굴뚝세 한마리가 GNP에 미치는 영향》 《파우스트의 선택》 《내일을 기세하는 생명공학》 《생태학자 박병상의 우리 동물 이야기》가 있으며, 공저로는 《생명의료윤리》 《진보의 패러독스》 《한국환경보고서 2000》 《참여로 여는 생태공동체 : 어느 근본주의자의 환경 다투리》 등이 있다.